

#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여객선 이동편의 개선 방안

† 김홍태

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안전환경연구본부 책임연구원

**요 약** : 2006년부터 시행 중인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교통약자법)」 제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국가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(2022~2026)이 수립 중에 있다. 2021년에 조사된 여객선의 기준적합 설치현황을 보면, '19~'20년 기준 여객선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34.9%로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. 해양수산부에서는 2000년부터 연안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장애인·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,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, 여객선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이동편의 개선의 한계로 인해 획기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본 발표에서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 교통수단의 특성, 이용 만족도 및 선박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.

**핵심용어** : 교통약자, 이동편의성, 여객선, 승객안전

## 1. 서 론

「교통약자법」 제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국가계획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수립되고 있다. 2021년에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(2022~2026)이 수립되었으며, 도로(보행환경)·철도·도시 및 광역철도·항공·해양·저상버스등(저상버스, 휠체어탑승가능 고속·시외버스, 특별교통수단) 분야의 계획이 수립되었다.

본 발표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수행한 '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'의 연구결과(한국교통안전공단, 2022) 중 해양 교통수단의 특성, 이용 만족도 및 선박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.

## 2. 증진계획 수립배경 및 환경 분석

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목적은 '17년 고령사회와 '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교통약자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이동편의 증진계획 마련하고,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다.

「교통약자법」이 시행된 2006년에 비해 현재의 사회적 환경은 많이 변화했다.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.

- 「교통약자법」 개정안 지속 증가추세에 따라 교통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 ('20년 45건)
- 「교통약자법」 제17조의2 개정으로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, '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' 의무화('22.10)

-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'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('22~'26)'수립
-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개정으로 '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'를 통해 철도역사(고속, 일반, 도시·광역철도)의 이동편의성 점검 및 관련 시설 개선명령 등의 필요
- 연안여객선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장애인·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, 해양수산부 주관 사업진행 중('20.2 ~ )  
.....(중략).....

## 3. 해상교통 교통약자 이동편의 현황 및 분석

'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'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,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자 만족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.

Table 1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

대상시설		목표(전국)	실적('20년)	달성률
교통수단	일반버스	82.0%	87.8%	107.1%
	저상버스	90.0%	95.9%	106.6%
	도시철도	90.0%	95.3%	105.9%
	철도	90.0%	98.6%	109.6%
	항공기	90.0%	73.7%	81.9%
	여객선	39.0%	34.9%	89.5%
교통수단 평균		80.2%	81.0%	101.1%
여객시설	여객자동차 터미널	73.0%	66.8%	91.5%
	도시철도역사	90.0%	89.2%	99.1%
	철도역사	90.0%	85.4%	94.9%
	공항터미널	90.0%	84.5%	93.9%
	여객선터미널	79.0%	83.0%	105.1%
	버스정류장	57.0%	47.9%	84.0%
여객시설 평균		79.8%	76.1%	95.4%
도로(보행환경)		81.0%	76.4%	94.3%

Table 1과 같이 '20년 기준 교통수단은 항공기와 여객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였으나, 여객시설 및 보행환경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

Table 2와 같이 '20년 기준 도로(보행환경)를 제외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전체 만족도 목표는 달성하였으나, 각 수단/시설별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

Table 2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현황

구분		목표	실적	달성률	
교통수단	버스	일반버스	70점	68.6점	98.0%
		저상버스	70점	-	-
	도시철도	80점	74.4점	93.0%	
	철도	80점	77.0점	96.3%	
	고속/시외버스	-	71.2점	-	
	항공기	80점	78.6점	98.3%	
	여객선	70점	66.4점	94.9%	
여객시설	평균	70점	70.3점	100.4%	
	여객자동차 터미널	70점	70.9점	101.3%	
	버스정류장	80점	72.1점	90.1%	
	철도역사	80점	76.3점	95.4%	
	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역사	80점	77.9점	97.4%	
	공항	80점	78.9점	98.6%	
	여객선터미널	80점	65.3점	81.6%	
	평균	70점	72.2점	103.1%	
	도로(보행환경)	70점	64.7점	92.4%	
	전체평균	70점	67.9점	97.0%	

.....(중략).....

#### 4. 4차 증진계획의 해상교통 분야 주요 내용

앞서 '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'의 현황 분석을 보면, 여객선은 지역과 무관하게 설치율이 낮아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. 또한 교통약자용 좌석 및 장애인 접근가능표시의 기준적합 설치율이 매우 낮아 시설기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.

여객선터미널은 최근 터미널 신축 및 리모델링 등으로 여객선에 비해 이동편의 설치율이 높으나, 타 수단 대비하여 낮은 설치율로 여객시설간 편의성 차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. 또한 특별·광역시의 안내 및 유도시설과 도지역의 세부적인 시설의 미비함이 조사되었으며, 상대적으로 낮은 도지역의 세부적인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.

'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'에서는 해양 교통수단의 특성, 이용 만족도 및 선박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을 마련했다(Kim & Lee, 2012)(한국교통안전공단, 2022).

- 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이동편의 수준으로 나타나므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필요
- 향후 교통약자의 증가와 해양관광 확대에 따른 선박 이용 증가 추세를 고려한 장기적 측면에서 이동편의 시설

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설정

- 교통수단 중 여객선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율 및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점을 감안하여, 추가 예산 확보 및 지급시설 중심으로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
- 여객선의 구조적 특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이동편의 시설 설치기준 보완 필요
- 교통약자의 여객선 이동편의를 위한 여객선 시설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 관련 R&D 발굴 필요

.....(중략)..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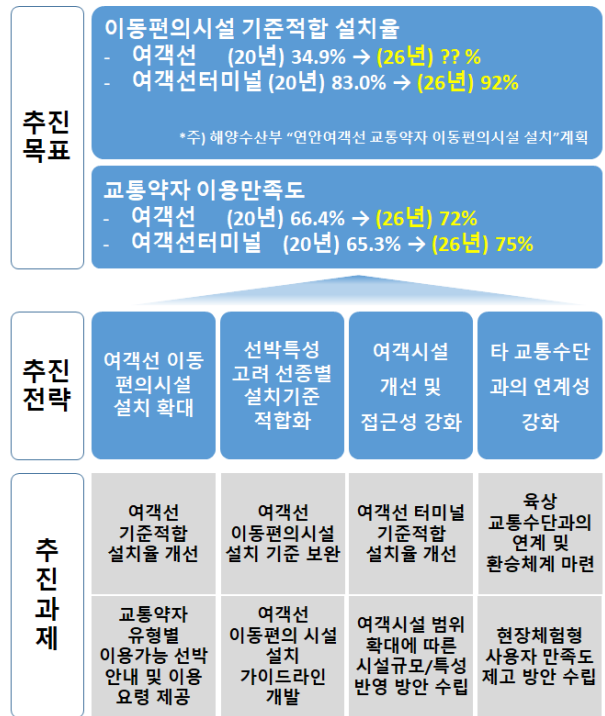


Fig. 1 해양부문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

.....(중략).....

### 후 기

본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'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'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힌다.

### 참 고 문 헌

[1] 한국교통안전공단(2022),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(안)(2022~2026). 국토교통부

[2] Kim, H. and Lee, J. K.(2012), Development of the Accessibility Guidelines for Mobility Handicapped Persons in Passenger Ship,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, Vol.36, No.9 pp. 763~767.